

# 영산재 주제로 한 대중음반 나왔다

### 마하연실내악단 11월 21일 '담마 레이니' 발표

법패는 불교의식에 의해서 생성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다. 예로부터 불교의식에는 다양한 가무(歌舞)가 수반되는데, 이들은 무속과 민간의 풍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음악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09년 영산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등 불교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패를 주제로 한 창작곡 앨범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하연실내악단(대표 성의신)은 11월 21일 마하연의 첫 번째 음반 '담마 레이니'를 선보이고 12월 15일 남산 국악당에서 초연한다.

'담마 레이니'는 한국의 불교의례 중 영산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음률로 대중성을 가미했다. 가사는 한문이 아닌 한글가사로 진행돼 법패를 일반 대중들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의례적 요소로는 활랑·천수바라·영산회상·가영·오공양·자귀의불·상주함

창·화정·북가락 엮음의 9곡으로 구성됐는데 영산회상 곡수와 같으며 곡 순서 및 양식이 법패의 순서를 따른다. 의례적 양식을 갖추기 위해 조계종 의례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산재 의례의 근본 취지와 골격을 갖췄다.

특히 '담마 레이니' 중 두 번째 곡인 '호도랑(護道場) - 이 도랑 맑게 지켜 주소서'은 천수바라를 변주한 곡으로 해금과 피아노 변주와 함께 그동안 음반으로 나온 적이 없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반주로 나와 관심을 끈다.

박경훈 작곡가가 작곡한 '호도랑'은 일정한 장단이 없는 천수바라를 해금·대금·태평소의 관악을 중심으로 편성에 웅장함을 표현했다. 가사는 관세음보살의 강림을 청하는 복정계(伏請偈)를 기반으로 '복정대중 동음창화 신묘장구대다라니' 가사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성의신 마하연실내악단 대표는 "법패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의 시도는 불교교

약 현대화와 더불어 불교음악을 예술화하는 작업"이라며 "향후 불교음악에 뿌리를 둔 전통음악을 기초로 21세기에 맞는 음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대표는 "특히 청소년 불자들의 정서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청소년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소통할 수 있는 음악회와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하연실내악단은 법당에 전통악기로 우리조의 찬불가를 부르자는 취지로 1993년 KBS국악관현악단인 성의신, 유기준 등 불자(피리·대금·해금·거문고·가야금·아쟁·타악·작곡) 7명이 뜻을 모아 창단했다. 2007년 찬불가를 해금으로 연주한 음반 '열두 송이 연꽃노래'를 발표하기도 한 마하연실내악단은 불교방송국 자료음악 제작, 한·중·일 학술대회 축하 공연,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02)703-6599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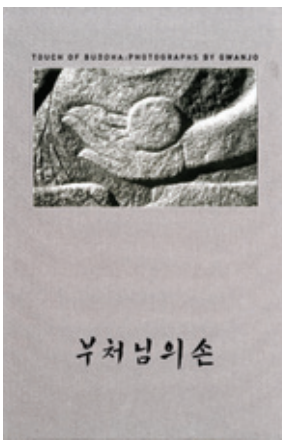


마하연실내악단의 연주 모습. 피아노, 드럼 등 서양 악기와 전통악기의 만남이 이채롭다.

# 부처님 손을 통해 본 불법

###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조 스님 사진특별전 '부처님의 손' 개최

부처님의 진리는 손(手印)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 부처님이 한 손으로 땅을,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킨 수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며 결가부좌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은 깨달음 직전 악마들의 강한 유혹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낸다. 또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의인, 모든 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 등 중생 구제의 뜻 또한 부처님의 손으로 표현된다.



나이에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수를 역임한 학승이자 이후 범어사에 주석하며 참선에 정진하는 등 평생 수행으로 일관해 온 선승의 면모를 보였다.

이런 기획특별전 '부처님의 손'에는 관조 스님이 촬영한 석불 수인 작품 20여 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19인의 짧지만 심오한 시가 붙여져 공개된다.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수인에 각각 법어를, 강은교, 김기택, 김명인, 도종환, 문인수, 문정희, 안도현, 오세영, 오탁번, 유안진, 윤금조, 이근배, 이문재, 이상국, 이영춘, 정현중, 허만하 등 19명이 수인에 맞는 각각의 시를 지어 눈길을 끈다. (055)382-1001

노덕현 기자

# 40년 맞은 東大 미술학부 역량 결집

1970년 12월 개설돼 올해 40주년을 맞은 동국대 미술학부가 동문과 재학생 역량을 한데 모은 기념전시회를 연다.

동국대 미술학부는 11월 23-29일 7일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MY PRIDE DONGGUK!'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4개 분야로 섬심(審心) '마음을 마음을 다잡아 가다듬는다', 신실(信實) '참되고 미더운 행실을 한다', 자애(慈愛) '대중을 자비심으로 대한다', 도세(度世)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진다'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여한 작가는 총 120명으로 각 분야 당 30명 씩 평면회화, 입체조각, 미디어 영상 등 미술학부 관련 작가들이 모두 참여했다.

동국대 미술학부 측은 "40주년 기념 전시 작품 판매 수익금은 RE-START 장학 기금으로 조성돼 후학양성에 쓰인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2260-8752

노덕현 기자

# 한국종교지도자협, 종교문화축제 개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승)가 제15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11월 28일까지 봉은사 보우당을 비롯한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음악회'가 마련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봉은사 보우당에서 '하트 시각장애인 체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동 음악회가 열린다. 이날 저녁에는 10월 경 사진 녹화한 축하공연 'KBS 열린음악회'가 저녁 6시부터 방송된다.

28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조병두 홀에서 '해설이 있는 문묘일부'와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소년소녀가장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17일에는 벨엘교회 공연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콘서트' 등이 각각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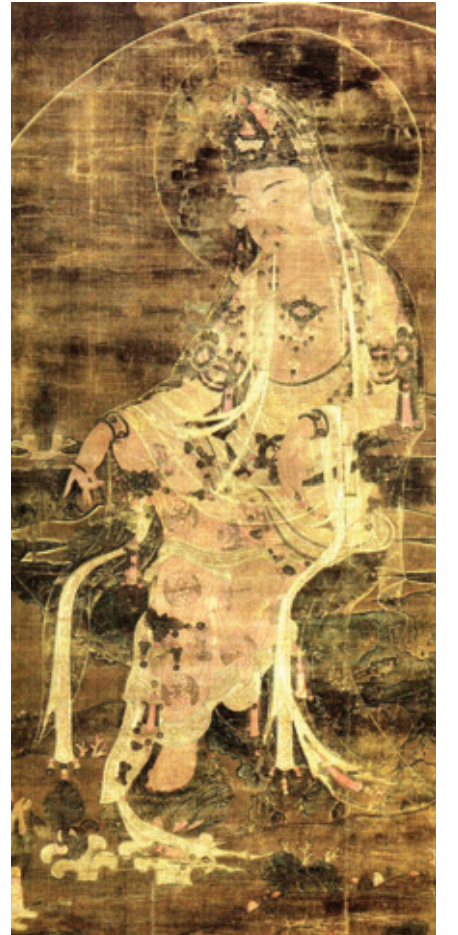
한편 매년 지역종교문화축제를 선정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올해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와 여주이주민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박기범 기자

# 고려 수월관음도 복원 공개된다

### 박미례 교수 3년 작업 끝에 12월 4일 은혜사 박물관서 전시

2011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특별한 작품 한 점이 고국 땅을 밟았다. 이 작품은 한국에 내리자마자 온도와 습도, 진동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특수 제작 호송차를 타고 양산 통도사로 옮겨져 전시됐다. 바로 세계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다.



이 고려 수월관음도를 복원한 불화가 12월 4일 영천 은혜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수월관음도를 복원한 이는 박미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다.

서 위원은 불교미술 최고 장인인 금어(金魚)의 계보 중 충청지역 마곡사의 금호, 정연, 지정, 병진 스님으로 이어진 계보를 이어 받았다. 박 위원은 2009년부터 3년 각 복원에 매달려 왔다.

1310년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높이 4m 20cm, 폭 2m 55cm를 자랑한다. 일본 가미신사(鏡神社)에 소장돼 일본에서도 쉽게 공개되지 않으며 사가현박물관에서도 1년 중 30여 일만 전시할 뿐이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가장 기법이 뛰어난 수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화 훼손 정도가 심

해 공개에 제한이 있다. (054)335-3518 노덕현 기자

##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향香

### 다보양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향균작용, 해충근절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가습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쾌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 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식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병차 330g	산차 50g	산차 50g
> 99,000원	> 39,000원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 110,000원

◆ 특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트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를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평당 다보양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 201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학 과	분 과	교 차	차원화인문학	불교사학	불교사학	생사문제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신학	다도	제다	사 회 학 지	생사문제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1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생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1. 11. 14(월)~12. 2(일)	본 대학원 홈페이지(지 인포)를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1. 12. 10(일)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문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문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령의 상계에서 인종·종교·부여 및 장애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명상상담전문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생(4학기 수료)은 총장명령의 명상상담사 자격증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문연구소 소장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전학 시 입학금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십시오.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827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 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 상수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 지되도록 경건인용과 일 상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불조정맥 佛祖正脈

###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鏡)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儀)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